

금요 양성 April 5, 2024

단위 형제회와 공유하시오.

미국 국가 형제회가 최근에 “복음에서 삶으로” 라는 주석이 담긴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을 발간했습니다. 가끔씩 발행되는 이 시리즈는 회칙의 머리말 (11월 17일자와 24일자), 회칙의 조항들, 주석 그리고 형제회안에서의 토론을 위해 만들어진 질문들을 제공합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삶으로의 복음” 이란 책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secularfranciscansusa.org/wp-content/uploads/Order-Form_October_2023rev.pdf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2장 18, 19 조

제 18조: 이밖에도 회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표지를 지닌” 다른 피조물, 곧 생물과 무생물에게까지 존경심을 표현하고 남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하며, 프란치스코께서 지녔던 보편적 형제애의 정신을 지니도록 힘써야 한다.

제 19조: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원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매인 죽음의 참 뜻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회원은 성부와의 결정적 만남을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주석

제 18조: 생태계 (피조물들이 자기 끼리와, 외부 환경과, 창조주 하느님과 맺게 되는 관계)는 프란치스코 사도직의 4번째 영역이다 (18). 프란시스는 모든 피조물 - 태양과 달, 날씨와 물, 불과 지구,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죽음 그자체 - 을 하느님과 인간의 결합의 상징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은 신성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구원사에 있어서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프란시스의 모범을 따라서,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심오한 존경을 나타내며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의도된 목적에 따라 그들을 사용해야 한다. 더구나 자연과 기술의 품위를 인정하여 자연 자원의 사용에 대한 공동체적 양심을 건설해야 한다. 피조물에 대한 이런 봉사 정신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조물의 남용과 낭비와 오염의 이기적인 흐름을 저지할 것이다.

제 19조: 프란치스코의 특별한 사역은 평화를 중재하는 것이다 (19). 평화는 개개인이 청렴하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롭게 지내며 모든 곳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할 때 자라난다. 평화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보게 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또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을 함으로써 구축된다. 평화는 모든 폭력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며 마음의 관대함을 포용하는 것이다. 평화의 결과는 기쁨이고 희망이다. 이러한 평화의 중재가 특별하게 사용되는 곳은 죽음을 준비할 때 인데, 죽는 순간에 사람은 하느님과의 최종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지상에서의 평화가 완성되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둘이나 여러 사람과의 토론을 위해, 또는 저널에 의견 쓰기

+18조와 주석을 다시 읽으시오:

- 피조물 돌봄

- 당신은 환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모든 피조물과의 “우주적인 친족관계”라는 말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 닿는 지 기술해 보시오.

+ 19조와 주석을 다시 읽으시오:

- 평화의 중재자와 “완전한 기쁨”의 전달자

- 평화의 중재자로서 어떤 봉사를 하였는지 예를 들어 보시오.
-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평화의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모범을 보였나요?
- 개인으로서 또 형제회로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줄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